

로컬플러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 공모사업
익산시 최종선정 4억원 예산확보

익산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주민여론강화사업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돼 2017년~2020년까지 총 4억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의쇠퇴한 도심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된다.

익산시는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주도 방식의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리더의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하고,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빌굴, 경관협정문화회 및 주민협의체에 의한 근대건축물 골목길 투어개발, 미술축제, 국제번창회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100년 철도 역사 활용한 우리 동네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자발적 주민 협의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여론강화를 통해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 발굴로 KTX 역세권 및 종합동 거리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도시재생, 경관,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특별 교육

익산시가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17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윤병준 행정자치부 지방구제혁신과 지방규제성과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지금은 규제개혁 시대”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적으로 행태, 자치법규, 법령의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한 사례와 인·허가 처리 지원과 같은 행태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 규제개혁 GoodBad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을 알기 쉽게 설명해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뒀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직원들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본인이 맡은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며 “직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접함으로써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업무 처리·지역·관행습습·업무 속지 미숙과 같은 행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현율 익산시장 국회 방문,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익산~부여구간 동시착공 요청

정현율 익산시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부가 민간투자방식(BTO)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부내륙 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사업 관련하여 부여~익산구간을 1단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정현율 시장은 충청권(평택~부여)은 1단계 사업은 2022년 완공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2020년 준공예정에 있음을 반면, 중간구간인 호남권(부여~익산)은 2단계 사업으로 2028년~2032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계획은 해당 노선의 기능역할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조 체계화 전복될 발전에도 결코 비판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소외감에 따른 지역차별로 이어져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있어 반드시 동시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동북아 신품수도로서 현재 국가실품클러스터 신입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미륵사지와 왕궁과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등 익산시 발전의 큰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며, 신입단지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및 물동량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동시에 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괴력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가 사업을 주관하고 민간투자회사인 포스코건설(주)가 대표 건설사로서 1단계 구간(평택~부여, 95km)은 오는 2018년 착

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인 호남구간(부여~익산, 43.3km)은 이보다 10년 뒤인 2032년 착공, 203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부내륙(경기·충청권~호남권)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서해안 및 경부고속도로에 접속된 교통망 분산 효과 뿐 아니라 경상권(익산~함양~울산)을 잇는 동서내륙축의 교통처리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부여~익산구간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조촌동,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군산시 조촌동이 복지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촌동은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기존 복지대상자 이외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를 실시한 결과 131 세대를 새롭게 발굴해 공적 부조 및 사회관련 민간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조촌동 및 춘향 복지팀 직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경정동 쪽방에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이 기초과 단절된 채 겨우 끼니를 연명하고 있어 조촌동 통장협의회에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후원금 30만원을 전달했으며 현재 긴급복지 대상자로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새롭게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지원 3건 민간후원 이웃돕기 및 생계비·체납 공과금지원 4건 등 총 2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진희병 조촌동장은 “숨어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요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who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이 없는 조촌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 실시결과 새롭게 발굴된 복지 대상자 131건 중 직권조사는 89건이며,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통장 및 이웃 주민이 발굴한 가구도 30건에 달해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낭산면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주변 지역주민 비소 노출검사

대상지역보다 대조군 비소 노출 비율 높아

익산시 낭산면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주변 지역 주민들의 비소 노출검사 결과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주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3만8,900여톤 정도가 성토재료 사용됨으로 추정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폭되자 이번 지역주민 인체 비소 노출검사가 진행됐다.

원광대학병원 주관으로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침출수 유출 사업장 하류수계 6개 마을 255명 모발을 통한 비소 노출 농도 검사를 실시하고, 대조군은 금마면 기양리, 신용리 주민 32명, 일반군(도시지

역)은 시장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녹십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기준을 고수치 저수치 값은 정하고 참고기준을 고, 중, 저 기준으로 “고”의 경우 문제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지역 6개 마을 14명이 비소에 노출되었고, 이중 2명이 “고”, 12명이 “중” 판정, 대조군 지역(금마면)은 4명중 1명 “고”, 3명이 “중”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군은 한명도 노출 판정을 받지 않았다.

또한 대상지역보다 대조군의 비소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다.

검사기관의 전문의에 따르면 “중금속 노출은 식습관이나 직업적 환경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모든 사

람의 인체에서 함유량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견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비소 노출자 18명에 대하여 별도로 원광대병원의 협조를 얻어 개인별로 문진 및 진단처방을 실시 할 예정이며, 또한 침출수 유출 사업장 주변지역 도양 농작물, 지하수 실태조사 후 오염 결과에 따라서 역학조사 실시 여부도 판단 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낭산면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과 관련 현재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경찰의날 축하기념 피아노 페스티벌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17일 오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피아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71주년 경찰의날을 기념하고, 군산경찰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하 연주회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경찰관과 그 가족 평소 경찰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찰협력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하 연주회에서는 이봉기, 폴리안스키, 히데우기, 모신 등 미국,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에서 온 6명의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이 출연, 수준높은 연주로 품격을 높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군산경찰서에서 매주 개최되는 금요 명사특강 시간에

지난 4월과 7월 명사로 출연, 피아노 연주를 한 이봉기 예인음악예술전문학교 교장과의 깊은 인연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경찰관들은 “정통 레슨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문화적 소양이 높아진 참 좋은 기회였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 운영

군산시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환급을 통한 개인의 소중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좌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지동차세 연납 후 치량발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유선통지 및 웹택스를 통한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환급통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포함 미환급 전수는

4808건이며, 이 중 2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3692건으로 전체의 78%이다. 이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이 누적되고 있어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급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납세자는 웹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063-454-2500)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이번 특별 환급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환급 구현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답과 민원편의 증진의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부안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의회



【부안정명60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6. 10. 28.(금) 18:00
■ 장소 : 부안군청 앞 광장

